# 안녕하세요 위클리에요

[Weekly: 2026/03/16~2026/03/22]

2026.03.23

### [로봇] 유니트리의 상장

-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휴머노이드 생산라인 투입 + 전사 역량 결집해 로봇 AI 및 핸드 고도화 추진
- 보스턴다이내믹스 설계 철학 공유. 액츄에이터 고도화와 부품 모듈화 강조. 자동차 양산 DNA도 도입
- 유니트리로보틱스 IPO 신청서 제출. 9,000억원 이상 확보해 미래 성장 추진

### [방산] 수출 파이프라인 업데이트

- KF-21 첫 수출 임박. 인니 대통령 방한시 16대 계약 체결 전망. 한화의 스페인 자주포 수주 임박 소식도
- 한화그룹의 KAI 지분 투자 사실 확인. 일부 보도에서는 LIG넥스원도 관심있다는 내용도
- 이란 사태는 계속되는 중. 미국 해병대 파병. 이란은 이스라엘 핵시설 공격과 장거리 미사일 공격 시도

### [조선] 카타르의 FORCE MAJEURE와 불확실성

- HD현대중공업 피더선 10척 수주, 삼성중공업은 LNGC 옵션 물량 1척($252M)을 수주
- 카타르,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 카타르 LNGC 대규모 용선 시장 유입 가능성 제기
- 캐나다 총리, 독일/노르웨이 정상과 회담. TKMS은 캐나다 가스스톱과 협력 체결 등

### [항공] 유류할증료 급등

- BTS 광화문 공연에 방한 외국인 수 증가 기대감
- 4월부터 유류할증료 대폭 인상. 3월말 발권 수요 폭발 전망
- 델타항공 주가 급등. 유가 상승에도 고소득층 여행 수요 강해 비용 상승을 전가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

### [해운] 전쟁보험료 급등

- 호르무즈 선박 전쟁위험보험료 전쟁 이전 대비 25~40배 급등
- 중동사태 지속으로 전세계 벙커유 가격 급등, 운임상승에도 원가 압박 우려
- MSC, '유조선 큰손' 장금마리타임 지분 50% 인수 추진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Weekly Keyword

**유니트리의 상장**

중국의 대표 휴머노이드 기업 '유니트리'가 상장 신청서를 제출. 공모 이후 실사용 가능한 수준의 로봇 제조를 목표. 동사는 이미 매출과 이익 수준 모두 범접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 중.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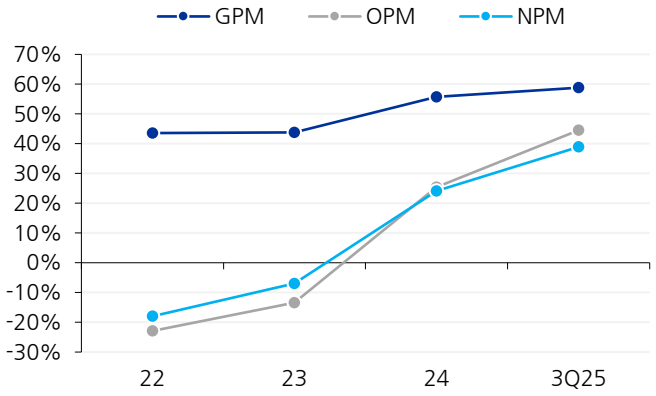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18)

**[유니트리의 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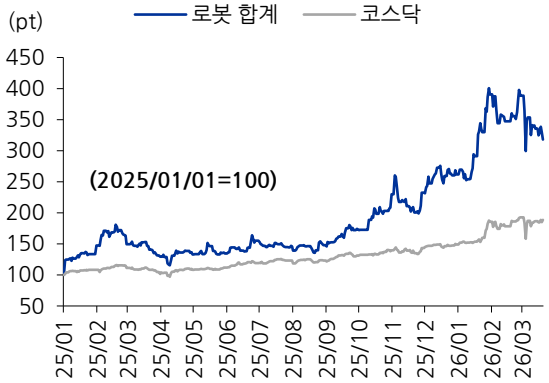
- 3월 20일, 중국의 대표 휴머노이드 기업인 유니트리 로보틱스가 상하이거래소의 커촹판에 IPO를 신청. 동사는 사족보행로봇과 휴머노이드 모두 글로벌 출하량 1위를 차지하는 기업. 지금까지는 가성비와 동적 움직임이 초점을 맞추어왔다면, 이번 공모 자금을 활용하여 AI 기술을 고도화, 생산 내재화 등을 통해 실제 작업에 투입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전망. 이미 동사는 매출액은 3,700억원 수준,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모두 흑자를 기록 중. 영업이익률은 일회성 요인을 제거하면 40% 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 중.

## Key Chart: 유니트리 주요 수익성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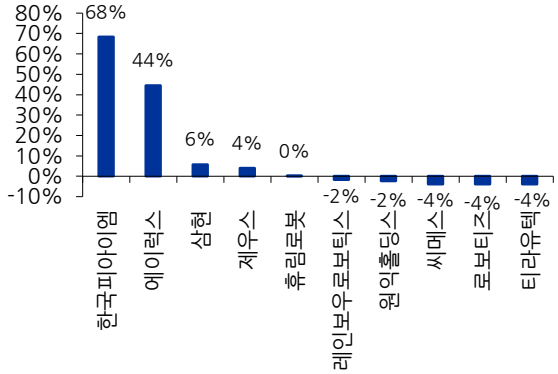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주) 25년은 주식보상비용을 제외한 수치

##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iwise

## 로봇 주요 뉴스(03/16~03/22)

**[전통 로봇(산업용/서비스)]**

- 뉴로메카, DN오토모티브 공장 협동로봇 자동화 수주
- 카카오모빌리티, 로보티즈와 호텔 로봇 운영 검증
- 티로보틱스, 日 화낙과 로봇 자동화 기술 협력
- 큐렉소, 인공관절 수술로봇 유럽 MDR 획득

**[휴머노이드]**

- 삼성전자, 생산라인에 휴머노이드 도입 추진

**[부품/SW/기타]**

- LG전자 "홈로봇 70년 '가전 데이터'로 정면돌파"
- 연기금, 2분기 코스닥150지수 BM에 넣는다
- 삼성전자, 로봇 특허 1만건 넘어. 구동·대화 기술 확보
- 현대모비스 "로봇 액추에이터가 핵심, 그리퍼 고려"
- 3월 FTSE 지수 정기변경. 로보티즈 등 편입

**[Global]**

- 보스턴다이내믹스 "현대차 24시간 일하는 로봇 원해"
- 보스턴다이내믹스, 필드AI와 자율로봇 기술 개발 추진
- 中 유니트리, 상장 준비 구체화. 9,000억원 조달 계획
- 中 상무부 수장, 유니트리 등 시찰. 지원 강화 시사
- 中 내달 19일 휴머노이드 하프 마라톤 앞서 테스트
- 中 산업용 로봇 생산 31% 급증. 두 달간 14만대
- 中 휴머노이드, 미국 위협' 美, 안보 명분 견제 목소리
- 日, 대미투자 2차 사업으로 AI로봇 조선기술 추진
- 日 다이후쿠가 휴머노이드 개발 추진
- 日 경단련, '로봇 강국 재건' 3단계 전략 제시
- 젠슨 황 '올라프 로봇' 선보여 AI 기술 과시

Weekly Keyword

**수출 파이프라인 업데이트**

KF-21을 비롯해 국내 주요 체계들의 수주 파이프라인 가동 중. KF-21은 빠르면 차주 수출 계약 예정. K-9도 스페인에서 급물살. 한편 레드백은 독일 우위가 지속되는 중.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66)

**[수출 파이프라인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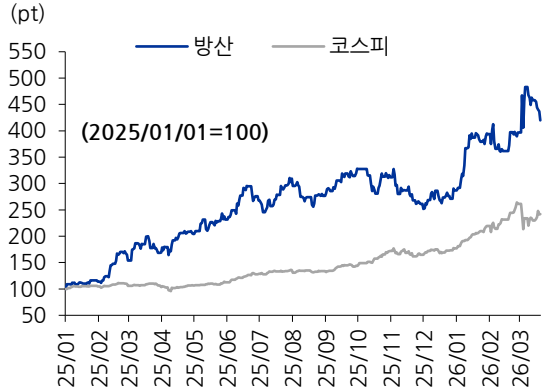
- 중동 사태 이후, 한국 방산은 요격 미사일 쇼티지 속 천궁 체계에 관심 집중. 그 외에도 다수 체계 수주 업데이트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리.
- ① **KF-21:** 31일 인니 대통령 방한시 16대 계약 체결 가능성 高(*일부 부품 현지 생산 포함) ② **천궁-II:** 카타르 및 쿠웨이트 수주 가능성 언급 ③ **K-9:** (1) 스페인 128대 수주 임박 보도(*K-9 베이스로 현지 사양에 맞춰 개량, 계약 형태 주목), (2) 미국 자주포 사업도 움직이는 중(*최근 미국 육군이 체코 방문해 경쟁 제품 확인) ④ **레드백:** 루마니아 IFV 도입 관련 라인메탈과 기술 사양 변경 논란. ⑤ **천무:** 프랑스의 발사대 도입 가능성 지속 제기되나, 실제 가능성은 확인 어려움.

## Key Chart: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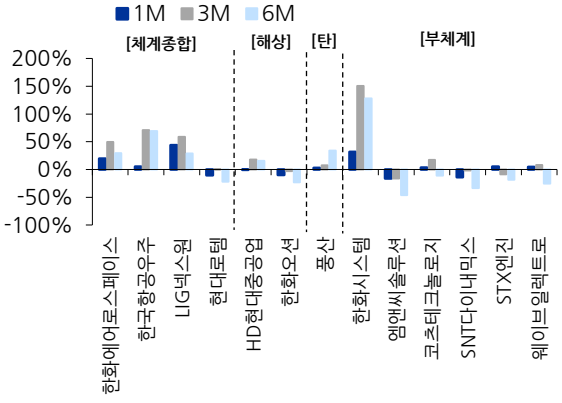
| 체계명 | 업데이트 |
|---|---|
| KF-21 | ▪ 3월 25일 양산 1호기 출고<br>3월 31일 인니 대통령 방한시 16대 첫 수출 가능성 제기 |
| 천궁-II | ▪ UAE/사우디/이라크 외 추가 수요 발생 중(카타르, 쿠웨이트 등) |
| K-9 | ▪ 스페인 궤도형 자주포 128대 계약 체결 임박<br>(스페인 인드라가 설계 권한 및 지재권 확보하여 스페인형 직접 개발 및 수출 권한 갖을 전망)<br>▪ 미국 자주포 사업 관련, 미국 육군이 체코 방문해 모라나 차륜형 자주포 평가 등을 수행. 3월 말 AUSA 컨퍼런스에는 엘빗 시스템이 SIGMA 마케팅 예정 |
| 레드백 | ▪ 루마니아와 라인메탈이 장갑차 기술 요건 협의하고 있는 내용 알려지며 논란.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은 SAFE 자금 활용해 구매할 예정. 한화는 80% 이상 현지화를 추진 중. |
| 천무 | ▪ 프랑스 도입(발사대) 가능성 제기되나, 실제 가능성은 미지수 |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iwise

## 방산 주요 뉴스(03/16~03/22)

**[수주/계약]**

- KF-21 보라매, 인도네시아 16대 수출 예정
- KF-21 일부 부품,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 추진
- 한화·인드라, 스페인 K9 현지 생산 협상 타결 임박
- 카타르, 한국과 천궁-II 구매 협상 급물
- 쿠웨이트, 방공시스템 도입 급물살 천궁-II 유력 후보

**[기업별 이슈]**

- 이집트, 한화디펜스와 K9 자주포 현지 생산 시작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 생산거점 증축 완료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지분 4.99% 확보
- LIG넥스원, KAI 인수 저울질. 내부 TF 가동설
- KAI, 25일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첫 선
- 8개월 대표 공백 끝낸 KAI.노조, 김종출 대표 인정

**[기타]**

- 강훈식 "중동 많은 나라에서 한국 방어무기 요청"
- 국방부, 드론사 '해체 대신 재편' 선택

**[글로벌]**

- 미국 해병대 파병. '하르그섬 상륙작전' 가능성
- 이란, 미사일로 4천㎞ 밖 '미·영 기지' 공격
- 미-일 PIPIR 일환으로 고체로켓모터 생산협력을 공식화
- 사우디, 천궁-II 긴급 도입한 UAE와 방공망 통합 추진
- 美, UAE·쿠웨이트·요르단에 24조원 무기 수출 승인
- 美 육군, 체코 방문해 모라나 차륜형 자주포 평가
- 라인메탈, 伊 이베코의 군용 트럭 사업부 인수 계획
- 미쓰비시전기, 미래 방산 해외 매출 증가 전망

유진투자증권

Weekly Keyword

**카타르의 FORCE MAJEURE와 불확실성**

카타르가 Force Majeure를 외치며, 중동에서 미국으로 LNG 수요 대체되면서 톤마일 증가되는 점은 긍정적이나 불확실성도 상존. 카타르의 LNGC 기발주 물량들 용선 시장 유입 가능성도 주시.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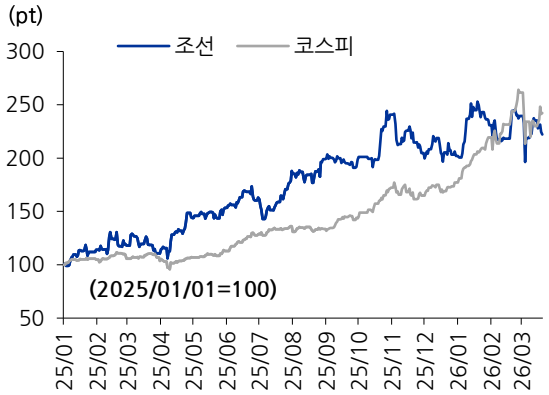
**[카타르의 Force Majeure와 불확실성]**

- 이란이 카타르의 라스라판 산업단지를 공격하며, 카타르의 LNG 수출이 제동. 카타르측은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되고, 3~5년간 연 1,280만톤의 LNG 공급 감소가 예상된다고 언급. 카타르는 전세계 LNG 수요의 약 20%를 담당.
- 아시아 등 카타르 LNG 주요 수입 지역에서 중동産 LNG에서 미국産 LNG로 대체 수요 발생하면서 톤마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다만, 현재 미국의 수출 용량은 최대치로 가동 중. 미국의 수출 확대 위한 FID 가속화 가능성. 반면, 사태 장기화시 LNG의 구조적 수요 감소 가능성도 제기. 카타르는 128척 LNGC를 주문한 상황이나, 이번 사태로 노스필드 확장 사업도 지연 전망. 이미 LNGC 인도는 진행 중. Laid-up, 인도 연기, 용선의 가능성. 용선 시장 유입시 운임 하방 압력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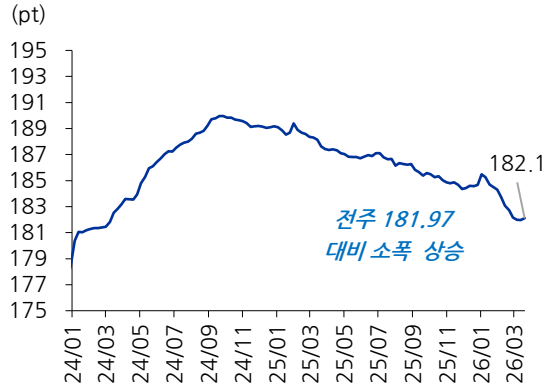
## Key Chart: 이스라엘-이란 공격 에너지 시설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iwise, Clarksons

## 조선 주요 뉴스(03/16~03/22)

**[상선/해양]**

- HMM, HD현대에 5.5억 달러 신조선 10척 발주
- 삼성중공업, 29년 납기 LNGC $252.0M 수주
- 대한조선 $89.50M 수에즈막스 1척 수주
- 삼성重 델핀 LNG 프로젝트 참가 트럼프 행정부 공식화

**[특수선]**

- 방위사업청장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 5대5'"
- 방사청, 오는 23일 KDDX 사업 제안요청서 공고
- 이집트, 한국과 214급 잠수함 국산화 사업 협상 진행
- 한화오션, 그리스 방산 진출위해 현지 조선소와 협력

**[기타]**

- 산업부, 펜실베이나주와 마스가 프로젝트 협력 논의
- 산업부, 美에 조선협력 위한 기자재 관세예외 요구
- 한화오션, 美자회사에 1,654억 출자. "운영·투자재원"

**[글로벌]**

- 쉘, LNG 수요 증가에 대한 낙관적 전망 제시
- MISC는 증기 터빈 LNG 운반선 3척을 폐기하기로 결정
- 카타르 "한국 등 장기계약 5년 불가항력 선언 가능"
- 카타르 LNG선 '20척+27척' 추가로 용선시장 나오나
- 핀칸티에리, 美 '골든 플릿' 70척 등 시장 공략 선언
- 트럼프, '존스법' 60일 한시 면제. 유가 급등 여파
- 안두릴, 美 해군 초대형 무인 잠수함 개발사업 수주
- 캐나다 총리 "잠수함 입찰, 공정한 절차 필요" 신중
- 獨, TKMS 加 잠수함 수주 강점 '재무 건전·외교 지원'
- 독일 TKMS·加 가스톱스, 차기 잠수함 '전략적 동맹' 체결

Weekly Keyword

**유류할증료 급등**

국내 항공사들의 4월 유류할증료가 크게 상승. 3월말까지 티켓팅 수요 집중 전망. 이후는 운임 부담 확대로 수요 영향 가능성 주시. 델타항공은 고소득층 수요 견조해 괜찮을 것이라는 전망.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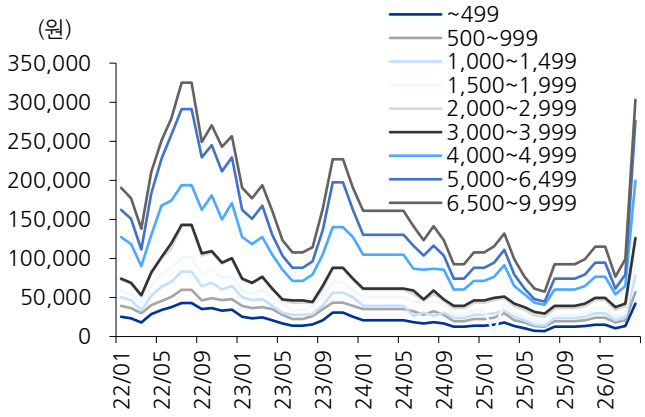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66)

[유류할증료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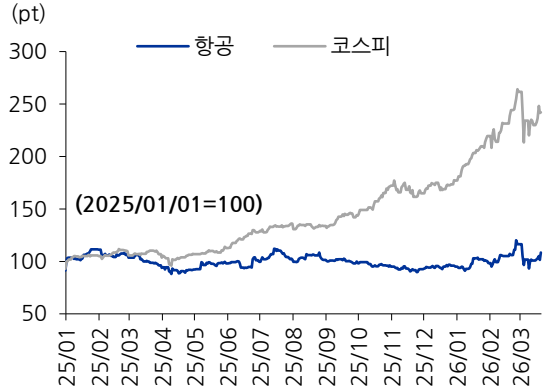
- 유가 상승에 따라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가 대폭 인상될 예정. 4월 발권부터 반영. **대한항공 기준, 일본 2.1만원 → 5.7만원, 동남아 3.9만원 → 12.3만원, 미국 동부 9.9만원 → 30.3만원으로 대폭 상승.** 3월까지 항공권 발권 수요 증가 전망. 이후 운임 부담으로 수요 부진 가능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항공사들은 주가 강세 기록 중.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델타항공 CEO는 "유류비 부담이 크지만, 동사가 주력하는 고소득층 수요는 운임 상승에도 구매력이 있으며, 고소득층 여행 수요가 강해 비용 상승의 부담을 가격 전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코멘트했던 영향으로 판단.

## Key Chart: 대한항공 거리별 유류할증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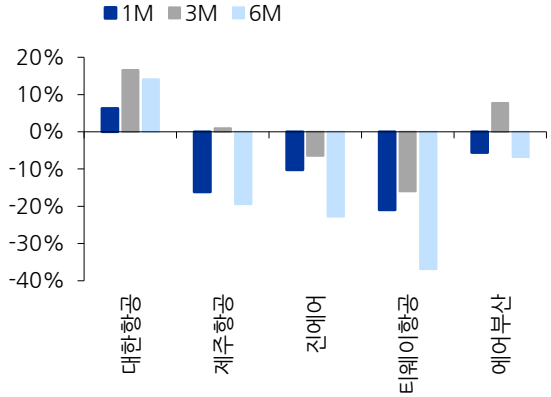



자료: 대한항공, 유진투자증권

##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iwise

## 항공 주요 뉴스(03/16~03/22)

[여객/화물]

- BTS 공연에 외국인 관광객 특수 기대
- 올해 하계 국제선 4천 820회 운항
- 인천공항, 25년 만에 취항 항공사 첫 100곳 돌파
- 뉴욕 왕복 유류할증료 50만원. 3배 이상 폭등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인천~두바이 운항 중단 다음달 19일까지 연장
- 티웨이, 중동발 악재에 비상경영 돌입 "투자 전반 점검"
- 티웨이항공 화물 사업 2년만에 2.3배 비약적 성장
- 티웨이, 인천공항 정비시설 개발 투자금액·기간 정정

[기타]

- 국토부, 12개 항공사 CEO와 간담회. 항공안전 점검
- 국토부, 국내 항공사들에 '유가전가' 자제 주문
- 이달 31일까지 결제해야 더 싸다 발권 수요 몰릴 듯
- LCC L/F 양극화. 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파라타 평균 이하
- 국민연금 "조원태 한진 사내이사 재선임 반대"

[글로벌]

- 델타·아메리칸항공 급등. 1분기 매출 가이던스 상향
- 델타, 유가 상승에도 고소득층 여행 지속되며 영향 제한적"

Weekly Keyword

**전쟁보험료 급등**

호르무즈 해협 선박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며 전쟁보험료가 선박가치의 최대 5% 수준까지 급등. 전쟁 장기화시 비용 상승 압력 증가로 선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 예상.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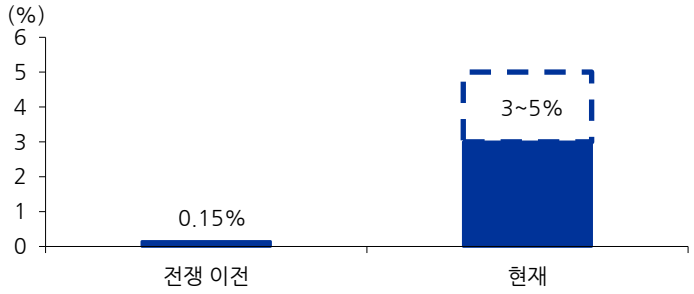
RA 임범수
02) 368-6168_ beomsu@eugenefn.com

## What's new? - 해운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9)

**[전쟁보험료 급등]**

-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지속 중. Clarksons에 따르면 전쟁 이후 피격된 선박 수는 3/20 기준 20척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전쟁보험료는 전쟁 이전 선박 가치의 약 0.15% 대비 현재 최대 5% 수준으로 급등. 이는 2억 달러 VLCC가 해협 통과 시 최대 1,000만달러의 추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함을 의미. 현재 미국 DFC는 약 200억달러 규모의 재보험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나, 군사 호위 전제 등 세부조건은 불확실한 상황.
- 선사는 전쟁보험료를 화주에 할증 형태로 운임에 전가할 수 있으므로, 전쟁보험료가 단기적으로 선사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다만 전쟁 양상이 국가 간 기간 인프라 파괴로 확산됨에 따라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인상된 보험료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될시 운임 상승보다 비용 상승 압력이 수익성에 큰 변수로 작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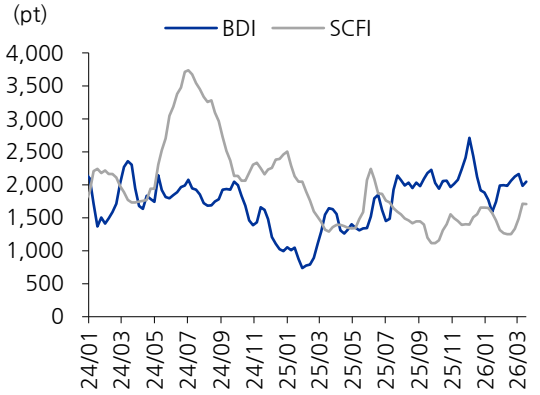
## Key Chart: 전쟁 이전 대비 현재 전쟁보험료




자료: 언론 보도 종합, 유진투자증권
주: 선박 가치 대비 비중

## 국내 해운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 해상운임 추이




자료: Quantiwise, Clarksons

## 해운 주요 뉴스(03/16~03/22)

**[벌크선]**

- 중동 사태 이후 벌크선 36척 호르무즈 해협 통과
- NYK, 오픈해치 선박 운영사 Saga Welco 완전 인수

**[탱커/가스선]**

- MSC, '유조선 큰손' 장금마리타임 지분 50% 인수 추진
- 美, 이란산 원유 해상 판매 4/19까지 한시 허용
- 호르무즈 이어 홍해까지, 이란發 해운 리스크 확산
- 이란, 검증 시스템 통해 선별적 해협 통과 허용
- 인도-이란, 호르무즈 해협 안전통항 관련 협의

**[컨테이너선]**

- Maersk, 유럽 역내 정기항로 시장 점유율 12.1%로 상승
- Maersk·Hapag-Lloyd, 중동 사태 관련 비상대책 발표
- HMM 노조, 4/2 부산 이전 반발 총파업 예고
-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 3월 GRI 목표치 대거 미달
- 중동 사태 지속으로 대체 항만 접안 7~10일 지연
- 태평양 횡단항로 운임 상승, 컨테이너 운임 3주 연속 상승

**[기타]**

-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보험료 사상 최고 수준 근접
- 중동 사태 지속으로 전세계 벙커유 가격 급등
- 美 에너지 가격 완화 위해 존스법 60일 한시 면제
- 美 해양행동계획(MAP) 발표, 해상 운송 자립도 확대
-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로 자동차운반선 공급 과잉 조짐